

말레이시아 2023: 통합정부 집권 1년 도전과 위기

고영경* · 최기룡**

국문초록

2023년 말레이시아 정가의 가장 큰 관심은 통합정부(Unity Government)가 내·외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을 안정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레포르마시(reformasi)의 상징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은 부패를 척결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경제 회복을 마다니(MADANI) 경제 프레임워크와 신산업마스터 플랜 2030으로 해결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 총재이자 부총리인 이스마일 사브리(Ismail Sabri)의 기소 취하와 나집 전 총리 사면 요청 등으로 당 내부에 미세균열이 발생하며 안와르 정부를 긴장하게 했다. 주의회 선거에서 녹색물결을 일으킨 국민전선(BN)의 선전으로 향후 말레이-이슬람계의 지지를 얻기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해졌다. 10월 발표된 메르데카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경제적 문제로 인해 통합정부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안와르 정권 1년만에 곳곳에서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2024년 국왕 교체 시기와 맞물려 정권안보를 위한 정치 및 경제적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주제어: 통합정부, 주의회 선거, 녹색물결, 마다니 경제, 신산업마스터 플랜 2030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 연구교수, youngkyung.ko@gmail.com

** 경남도의회 정책지원관, krchoe@gnu.ac.kr

I. 서론

2023년 말레이시아 정가의 가장 큰 관심은 통합정부(Unity Government)가 연합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레포르마시(reformasi, 개혁)의 상징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이 마침내 집권에 성공하면서 2018년 이후 이어온 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안와르는 집권 이후 부패척결과 민주주의 강화와 함께,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경제 회복을 목표로 마다니 경제(Madani Economy) 프레임워크를 가동했다. 그러나 안와르의 개혁이 성공하기보다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통합정부의 한계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출발 조건의 한계 때문이다. 개혁세력을 등에 업은 안와르와 희망연합(PH: Pakatan Harapan)이 과반수의 의석 차지에 실패하며 말레이시아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헝 의회’(hung parliament,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의회)가 들어섰다. PH는 대연정을 위한 파트너로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을 선택했다. 개혁의 대상이자 부패 정당으로 낙인찍힌 통일말레이 국민기구(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와 손을 잡으면서 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지 우려를 낳았다. 부총리에 UMNO 총재인 아흐마드 자히드(Ahmad Zahid)가 임명되면서, 자히드의 부패 혐의 관련 수사뿐만 아니라 나집 전 총리의 1MDB 부정부패 스캔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1MDB 부채 상황은 정부예산의 부담이다. 안와르 정부 출범 이전 말레이시아는 해외수요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8.7%라는 역대급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고충이 커졌고,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

제위축으로 2023년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 중장기 성장 로드맵을 내세웠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안와르의 통합정부는 15대 총선에서 국민연대(PN: Perikatan Nasional)의 인종적, 종교적 호소로 인해 PN 쪽으로 기울어진 말레이계 다수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2023년 풀어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였다(김형중 외 2023). PN 내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 Parti Islam Se-Malaysia)은 15대 총선에서 지난 선거 대비 140%나 늘어난 43석을 확보했다.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단일 최대 규모 정당이 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북부지역에는 마치 쓰나미처럼 ‘녹색물결’(Green Wave)이 몰아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났다.

통합정부 형성과 PAS의 녹색물결 속에서 2023년 말레이시아 정치의 화두 중 하나는 8월 6개 주에서 열린 주의회 선거였다. 통합정부가 기존 주에서 우세를 유지하고 나아가 확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PAS가 중심이 된 녹색물결이 통합정부를 위협할 것인가? 안와르는 앞선 3명의 총리와 달리 16대 총선까지 남은 임기를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15대 총선 이후 나타나고 있는 종족정치와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인가? 헌법 개정으로 유권자가 된 18~20세 중심의 청년 투표의 성향은 말레이시아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내외로부터 던져진 주요 과제는 안와르의 통합정부가 안정적 집권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와 연결되며 안정적 집권을 담보하는 것은 경제개혁과 그 성과에 달려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안와르 통합정부의 집권과정 과정에서 드러난 통합정부의 과제, 그리고 안와르의 경제정책인 마다니 경제와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의 탄생 배경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와르 정부가 ‘통합과 안정, 개혁’ 과제 수행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하고 2024년 예산안을 통해 향후 경제정책 방향

을 예상해볼 것이다.

II. 안와르의 정권 안보: 불안정한 공존과 녹색 물결

형 의회 문제를 해소하고 총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2022년 말 안와르는 PH, BN, 사라왁정당동맹(GPS: Sarawak Parties Alliance), 사바정당동맹(GRS: Gabungan Rakyat Sabah) 4개 연합의 19개 정당이 참여하는 통합정부를 출범시켰다. 통합정부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148석을 확보하며 모든 인종, 종교와 지역을 포용하면서도, 연합간 지지기반이 겹치지 않아 공존의 여지가 클 것으로 평가됐다(Chai 2023). 말레이시아 과학대학교(Universiti Sains Malaysia) 정치사회학과 판디안(Sivamurugan Pandian) 교수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 2018~2022년 말레이시아가 겪은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통합정부는 중도주의 신념을 가진 연합과 정당으로 구성돼, 종족정치 중심의 PN의 확장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Tan et al. 2023).

안와르는 취임 초기 수년간 이어져 온 정치적 불안과 경제 부진을 타개하고자 포용적 정치와 규칙기반 경제시스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 규모를 축소하고 장관 월급을 20% 삭감했으며, 안와르는 총리로서 급여를 받지도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을 사용하지도 않겠다는 등의 발표를 하며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든 비싼 바틱(batik) 셔츠 같은 선물을 보내는 관행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혁 의지를 기본적인 것부터 다져나갔다(Palansamy 2022).

그러나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내각 구성부터 도전에 직면했다. 통합정부 내 다양한 정당이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 인선에 난항을 겪었

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2일 공개된 내각 각료 명단에서 안와르는 재무부 장관직을 겸직하고 아흐마드 자히드(Ahmad Zahid) UMNO 총재가 제1부총리로 지명되었고, 파딜라 유소프(Fadillah Yusof) GPS 대표가 제2부총리 겸 원자재부 장관에 임명됐다. 총선에서 26석만을 얻었음에도 UMNO는 부총리직과 법률, 국방, 국제 무역 및 산업, 외교, 고등 교육 등 여러 주요 직책을 맡았다. 내각 구성을 바라본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개혁이 반쪽짜리에 불과하거나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기 시작했다. 안와르 정권이 정당성(legitimacy)을 얻기 위해서는 의석수를 둘러싼 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및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계속해서 통합정부의 과제 가 되고 있다.

UMNO가 중심이 된 BN의 장단점은 통합정부 참여 초기부터 명확했다. UMNO는 통합정부 내 유일한 말레이 민족주의 정당으로서 통합정부의 정당성을 위해 필수적인 말레이-무슬림의 지지를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15대 총선에서 같은 말레이-무슬림 지지세력을 가진 PAS와 말레이시아뿌리부미연합당(Bersatu: Parti Pribumi Bersatu Malaysia)은 각각 43석과 31석으로 UMNO보다 많은 지지를 얻어 UMNO의 입지가 매우 좁은 상황이다(Ostwald 2023). 안와르 총리가 진보적 성향의 다민족 그룹으로부터 지지가 높지만 보수적인 말레이계 무슬림의 지지기반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덧붙여 UMNO와 민주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이 정략결혼(marriage of convenience)을 받아들이고 협력하고 있으나, 초당적 협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모습은 통합정부의 잠재적 균열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Kwong 2023). 이에 안와르 정부는 말레이-이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과 관련된 자킴(Jakim)의 역할 확대와 예산 증액, 1965년부터 논란이 있어온 샤리아

형법 개정 약속, 이슬람 교육기관 건설 예산 증액 등으로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통합정부 주요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도 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UMNO의 입지가 좁은 와중에 야당 총재인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을 2023년 3월 10일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총리 재임 시 ‘자나 위바와’(Jana Wibawa) 코로나19 경기부양 관련 국가 기금 유용과 뇌물 수수, 자금 세탁 등 6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로 500만 링깃(14억6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무히딘이 소속된 Bersatu 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Ibrahim 2023). 무히딘은 3월 기소된 후 사임을 언급했으나, Bersatu 최고위원회는 안와르 정부의 야당 탄압용 정치적 기소라 판단해 사임을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야당 총재를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이자 정치적 탄압으로 통합정부가 보수성향 말레이인들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CNBC 2023).

안팎의 불안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2023년 5월 14일 통합정부는 쿠알라룸푸르 세계무역센터 데완 메르데카에서 3,500명 이상이 참석한 첫 전국규모 정치집회를 개최하며,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집회가 열린 장소는 수십 년 동안 UMNO의 총회가 열렸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으로, PH가 주도하여 BN, GPS, GRS 등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안와르 총리는 전당대회에서 통합정부는 안정적이며 다음 총선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며, “Tekad Buat Malaysia”(말레이시아 결의안)에 서명했다. 결의안에는 일자리와 소득 증가로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것과 통합정부 내 연립 정당 간 준수해야 할 공약이 포함됐다.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연합과 정당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정당의 청년층이 참여하는 ‘Unity Gang’이라는 새로운 기구도 마련했다(말레이시아 총리실 2023). 안와르는 5월 5일 말레이시아 적신 일사 창립 75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신의 뜻이라면 통합정부는 다음

총선까지 남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통합을 거듭 강조해왔다 (Bermana 2023).

통합정부의 안정을 다져온 안와르이지만 주의회 선거 이후 한 번의 지각 변동은 겪으며 행보에 주의가 필요함을 경험하게 된다. 2023년 9월 3일 말레이시아 검찰이 배임, 뇌물수수, 그리고 자금 세탁 등 47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현 부총리 자히드의 혐의에 대해 기소를 취하였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자 개혁과제로 제시한 부정부패 척결이 선택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커졌다. 시민단체인 버르시(Bersih)는 안와르 총리가 부패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 강하게 비난했다.

나집 전 총리에 대한 사면이 요청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통합정부 내에서도 균열이 발생했다. 시에드 사디크(Syed Saddiq)가 이끄는 말레이시아 통합민주동맹(MUDA: Malaysian United Democratic Alliance)이 지지를 철회하고 통합정부를 이탈해버린 것이다. 통합정부에서 단 1석에 불과한 정당이었지만 MUDA는 상징적인 지위에 있었다. MUDA는 말레이시아 정치 체제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 청년을 대표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MUDA가 탈퇴하면서 통합정부는 개헌선에서 1석 모자란 147석에 그치게 됐다. 간신히 개헌선을 유지하던 통합정부는 단 1석의 이탈로도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

다행히도 통합정부는 2023년 10월과 11월 PN연합 내 Bersatu의 압둘 칼리드(Abdul Khalid)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안와르 총리를 지지하면서 통합정부는 다시 개헌선 이상인 152석을 갖게 됐다. MUDA의 탈퇴와 5명의 Bersatu 의원이 안와르 총리에게 제공한 지지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지지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려던 당적변경방지법(anti-hopping law)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Azhar 2023).¹⁾

[표 1] 2023년 11월 현재 의석 배분 현황

정당연합	통합정부(Unity Government)					야당
	PH(81석)	BN(30석)	GPS(23석)	GRS(6석)	기타(12석)	PN(68석),
소속 정당	DAP(40)	UMNO (26)	PBB(14)	Sabah BERSATU(4)	BERSATU (5)	PAS(42)
	PKR(31)	MAC(2)	PRS(5)	PBS(1)	Warisan(3)	Bersatu(26)
	Amanah(8)	MIC(1)	PDP(2)	Sabah Star(1)	KDM(3)	MUDA(1)
	UPKO(2)	PBRIS(1)	SUPP(2)	-	PBM(1)	-
총 221석	총: 152석					총: 69석

※ 의석이 총 222석이 아닌 221석인 이유는 현재 Kemamon 지역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출처: The Edge(<https://theedgemaalaysia.com/node/692743>)

통합정부 내부 문제와 함께 강력한 야당의 존재 역시 안와르 정권 안보의 도전 요인이다. 말레이 유권자 중 60%는 무슬림인이 차지하고 있다. 과거 UMNO, PAS, Bersatu가 이슬람 대표정당으로 지지 세력을 나눠가졌으나 현재 PAS에 변화를 바라는 많은 젊은 유권자들 지지가 커지고 있다. 무히딘 야신은 PN이야말로 진정한 말레이인들과 이슬람이 이끄는 정당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PN에 대한 지지는 UMNO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원 부족과 경제적 특권 상실을 두려워하는 신세대 말레이 유권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Lemiere 2023). 전문가들은 Bersatu와 PAS의 연합으로 말레이인과 이슬람이 결합하는 종족주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Strangio 2023). PAS와 Bersatu의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UMNO의 입지가 축소되면서 BN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중국인연합(MCA: Malaysian Chinese Association)과 말레이시아인도인회의(MIC: Malaysian Indian Congress)의 중국인들과 인도인들도 상대적으로 말레이인들

1)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당적변경방지법’(anti-hopping law) 제49조A에 따르면 하원의원이 한 정당 구성원에서 사임하거나 정당구성원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의석이 공석이 되며 보궐선거를 치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20년 PH의 몰락을 초래한 탈당 사태를 방지하고자 등장했다

보다 소외된다는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인도 유권자의 경우 2008년 슬랑오르(Selangor)와 페낭(Penang), 2018년 느그리 쉴빌란(Negeri Sembilan)과 꼬다(Kedah) 주 승리에 중추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이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향후 말레이시아 정국의 또 다른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말레이-무슬림의 지지로 녹색물결(Green Wave)을 일으키고 있는 PAS의 경우 빠를리스(Perlis), 꼬다, 끌란탄(Kelantan) 및 프렝가누(Trengganu)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면서 이 지역의 이슬람화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11월 19일 치러진 제15대 총선에서 PAS가 북부 주 전역을 휩쓸었다. 끌란탄 주에서 14석을 모두 가져갔고, 프렝가누에서는 8석을 모두 가져오는 역사를 만들었으며, 빠항에서 2석을 획득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인민정의당(PKR: Parti Keadilan Rakyat)과 Amanah는 북부 지역에서 녹색물결에 밀려 많은 득표를 얻는 데 실패했다(Amsyar 2022).

녹색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PAS가 비말레이인 대상으로 지지를 확장해 갈 경우 통합정부의 정권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AS 역시 말레이인 투표만으로 다음 총선에서 집권 여당 연합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비무슬림인과 비말레이인 지지를 높여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당 내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PAS의 이미지가 극단적인 이슬람 노선으로 비춰져 당분간 PAS의 녹색물결이 더 확산되기보다는 말레이시아 북부에 머물 가능성이 커 보인다. PAS가 통제하는 끌란탄, 프렝가누, 꼬다, 빠를리스에서는 게임 및 복권 매장 금지, 주류 판매 금지, 옷차림 규정 등이 존재해 비무슬림인들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PAS가 온건한 노선을 보일 필요가 있으나, 그 경우 현재 지지들

마저 놓칠 수 있어 노선 변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BediRashvingeet 2023).

Ⅲ. 6개 주의회 선거: PN의 약진과 통합정부의 과제

연방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 만인 2023년 8월 12일 실시된 6개 주의회 선거는 안와르 이브라힘의 통합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야당인 PN은 주의회 선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며 통합정부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을 지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의회 선거는 끄다, 끌란판, 느그리 슴빌란, 빠항, 슬랑오르, 트렝가누 6개 주에서 이뤄졌다. 9개 정당의 570명의 후보자들이 총 245개의 주의회 의석을 둘러싸고 경쟁에 돌입했다. 집권여당 연합과 야당이 6개 주를 3개씩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상대방 지역을 얼마나 공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통합정부가 하원(Dewan Rakyat) 222석의 3분의 2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회 선거가 현재의 총리와 여당의 지위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조기총선을 제외한다면 향후 2년간 선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향후 정국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사에서는 물가 상승, 성장 둔화, 링깃화 약세 등 경제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한 우려가 선거에서 중점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평가됐다. 독립된 리서치 기업인 일함 센터(Ilham Center)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PH가 말레이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UMNO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주의회 선거에서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청년투표 성향 역시 PN 지지가 강할 것으로 드러났다(MalaysiaNOW 2023). 선거에 돌입하면서 각 정당은 자신에게

판세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노력했다. 통합정부는 ㄷ다 주에서 PN 견제를 목표로 삼았으며, PN은 느그리 슴빌란과 슬랑오르 주에서 확장을 노렸다. 6개 주 중 슬랑오르는 PN의 공세와 수성하려는 통합정부 사이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진 지역이었다. 슬랑오르 주는 중국 및 인도인 지원이 확고하고 경제적 성과도 좋아 PH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안와르 총리는 우세를 점하기 위해 선거기간 2주 동안 슬랑오르 주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The Business Times 2023). PN은 말레이인 다수 거주 지역에서 의석수를 늘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해당 주를 장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표 2] 2023년 주의회 선거 연합 및 정당별 득표(괄호 안은 2018년 정당별 선거 득표)

주(州)	Kedah 36석	Kelantan 45석	Negri Sembilan 36석	Penang 40석	Selangor 56석	Terengganu 32석	총 의석 245석
통합정부 (PH-BN)	3 (18-3)	2(0-8)	31(20-16)	29 (9-25)	34(51-4)	0(0-10)	99석
PN(PAS)	33(15)	43(37)	5(0)	11(8)	22(1)	32(22)	146석
기타	0	0	0	0	0	0	0
2/3석	24	30	24	27	38	22	-

출처: <https://election.thestar.com.my/kehad.html> &
<https://election.thestar.com.my/ge14/kehad.html>

선거 결과는 예측대로 여·야가 자신이 유리한 지역을 지키며 3곳씩을 균형 있게 가져간 것으로 평가된다. 균형은 이뤘지만 통합정부는 슬랑오르에서 2/3 의석을 얻는 데 실패한 반면, PN은 1석에서 22석으로 늘리는 결과를 얻었다. 통합정부가 슬랑오르에서 가까스로 승리한 가운데, PN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주에서 통합정부가 2/3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저지했다는 점에서 성공적 결과로 평가됐다. 선거 결과가 안와르 정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말레이-무슬림인들의 지지 약화는 UMNO와 대연정을 유지하는 것에 득일 것인지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안와르 총리는 “선거 후에도 통합정부는 안정적인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선거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Chan 2023).

PAS는 녹색 물결로 슬랑오르에서의 22표를 획득하는 괄목할만한 성과 외에도, 말레이시아 서해안의 세 주 모두에서 상당한 진출을 이뤄냈다. PN은 총 245개의 주의회 의석 중 146석을 휩쓸었다. PN은 말레이 유권자로부터 많은 표를 얻어 총 득표율은 49.3%로 49.5%의 득표율을 보인 PH-BN과 지지자를 양분해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전에서 PN은 지난 총선처럼 SNS를 잘 활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15대 총선에서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TikTok 등 SNS를 활용하여 성공을 거뒀는데, 단적인 사례로 무히딘 야신이 업로드한 스와이프 챌린지(swipe challenge) 관련 영상은 총선 전 이미 4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개헌으로 신규로 유입된 18~20세의 유권자 약 140만 명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Tiktok을 다와(Dakwah, 이슬람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의미) 및 정치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PAS가 잘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Amsyar et al. 2022).

선거 이후 통합정부와 야당은 혼란스러운 하반기를 맞이했다. 우선 통합정부는 9월 자히드 하미디(Zahid Hamidi) 부총리의 부패 혐의가 기각되면서 MUDA 이탈과 개헌선 붕괴 등 혼란을 한차례 겪은 바 있다. 10월에는 안와르 총리의 취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독립 여론조사기관인 메르데카 센터(Merdeka Center)의 설문조사 결과 통합정부 지지율이 하락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 결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제성과에 대한 우려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50%까지 떨어졌다. 응답자의 48%가 안와르 행정부의 업무

수행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유권자 중 60%는 말레이시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31%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락 원인으로 경제문제가 56%로 가장 컸으며, 정치적 불안정 13%, 행정 부실이 9% 순으로 나타났다(Merdeka Center 2023). 작년 여론조사에서 안와르에 대한 지지율이 68%,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48%가 평가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였다. 2월에 발표된 메르데카 센터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문제 해결이 국민 지지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정부 출범 이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Merdeka Center 2023).

야당의 경우 PN 총재인 무히딘 야신이 Bersatu 의원의 연이은 이탈 등의 이유로 11월 23일 PN 총재직에서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다. 3월에 이어 2번째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말레이시아 노팅엄 대학교의 정치 분석가인 브리짓 웰시(Bridget Welsh)는 Bersatu가 선거로 얻은 지지를 잃을 것이며 사임이 PN 연합 내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야당에서 무히딘만큼 안와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 부재하기 때문이다(Reuters 2023). 그러나 소위 ‘24시간 사임’, ‘유턴(U-turn)’으로 불리는 번복이 이뤄지자 테즈메니아 대학의 아시아학 교수인 제임스 친(James Chin)은 무히딘이 Bersatu에서 자신의 진정한 지지를 시험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Bersatu 부총재 파이잘 아주무(Faizal Azumu)와 당 사무총장 합자 자이누딘(Hamzah Zainuddin) 사이에 정치적 긴장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무히딘이 이들을 견제하고 당을 정비하기 위해 사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PN에서 PAS가 더 큰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PAS의 압둘 하디 아왕(Abdul Hadi Awang) 총재가 총리 후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한 수로도 분석된다. 말레이시아 내 소

수 인종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 특히 중국인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발언을 하면서 총리 자격에 의문을 품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Chin 2023). 이에 무히딘이 Bersatu 뿐만 아니라 PN의 분열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사임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안와르 정부는 취임 1년만인 12월 12일 개각을 단행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행보를 보였다.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포트폴리오 부처 신설 등으로 내각 구성원 수가 28명에서 31명으로 늘었으며, 11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근로자공제기금(EPF) CEO 아미르 함자 아지잔(Amir Hamzah Azizan)이 제2 재무장관 자리로 복귀했고, UMNO 부총재인 모하마드 하산(Mohamad Hasan)이 국방장관 자리에서 외무부 장관으로 보직을 변경했다. UMNO 정치인 조하리 압둘 가니(Johari Abdul Ghani)는 플랜테이션산업상품부(Plantation Industries and Commodities)를 맡기 위해 내각으로 복귀했다. 이번 개각에서는 인적자원부 장관이었던 시바쿠마르(DAP 소속) 한 명만 해임됐으며, 부총리 아마드 자히드 하미디는 유임됐다(Tan 2023).

2024년 1월 조호르 술탄이 새 국왕이 되기 직전 이뤄진 이번 개각에 대해 정부의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전략인 한편으로 기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조호르의 왕세자인 술탄 이브라힘(Sultan Ibrahim)은 10월 안와르가 좋은 내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차기 국왕 후보인 술탄 이브라힘 술탄 이스칸다르(Sultan Ibrahim Sultan Iskandar)는 국가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의지가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Tan 2023). 2024년 안와르 정부는 정권안보를 위해 내부와 외부를 단속하는 것과 함께 국가 거버넌스 권력구조상의 국왕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까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IV. 안와르의 경제정책

PH가 연합정부를 구성하면서 안와르는 총리이자 재무부 장관을 겸임하였다. 이는 경제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뜻이며, 먼저 가장 앞에 내세운 경제정책의 기초는 물가안정과 장기성장 전략이었다. 안와르 정부는 2022년의 8.7%라는 역대급 성장률을 바탕으로 등장했지만, 인플레이션이 2022년 1분기 2.2%에서 4분기 4.2%까지 치솟았다. 특히 식품 가격이 5.8% 올라 저소득층에 타격이 컸다. 2023년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증대되면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경제전망 속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역시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률을 4.7%에서 4.6%로 하향 조정했다(ADB 2022). 게다가 정부 부채 증가도 부담이 됐다. 2020-2022년 팬데믹 충격 회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60.4%까지 증가했다. 원칙적으로는 말레이시아 정부 부채는 GDP의 최대 60%까지만 허용되지만 팬데믹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상한선을 65%까지 높여 놓았다. 따라서 안와르 정부는 국내에서 완벽한 정치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두 가지 최우선 과제를 수행할 정책이 필요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국내 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둘째 중간소득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정책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마다니 경제와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NIMP: New Industrial Master Plan)이다.

1) 안와르의 길, '마다니 경제 (Madani Economy)'

2023년 1월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 마다니(Malaysia Madani)

를 제시하였다. 마다니는 그 자체로 시민(citizen), 마을사람(townsmen), 또는 예의 바른(polite), 사회적인(sociable), 도시적인(urbane)의 뜻을 담고 있어 안와르의 슬로건은 영어로 ‘Civil Malaysia’로 표현된다. 동시에 마다니는 keMampanan(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Kesejahteraan(번영, Prosperity), Daya Cipta(혁신, Innovation), hormat(존중, Respect), keyakinan(신뢰, Trust), 그리고 Ihsan(보살핌, Compassion) 등 6개 키워드의 줄임말(말레이어로는 줄여서 마다니, 영어 약어로는 SCRIPT)이다. 6개 단어에 정책 프레임워크의 핵심 가치가 담겨 있고 이를 근거로 문명화되고, 숙련되고, 포용력 있는(a civilized, skilled and inclusive) 사회를 건설한다는 비전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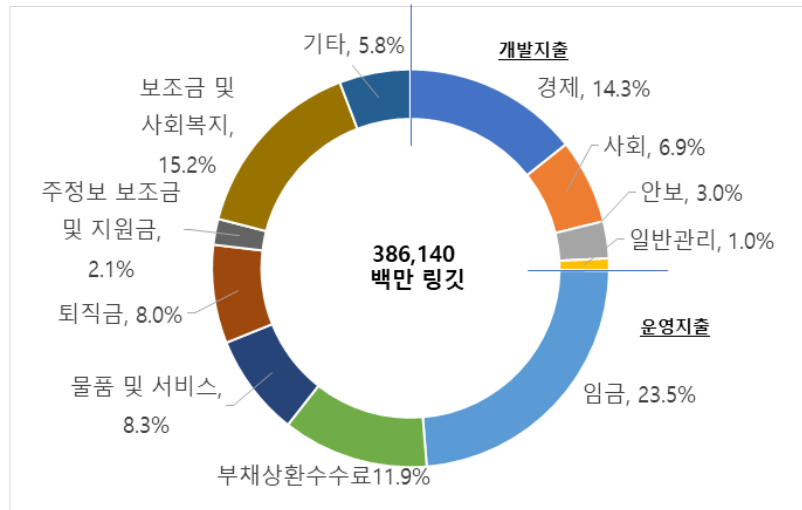
안와르 총리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역대 총리들은 각 정부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슬로건을 내세웠었다. 마하티르 빈 모하맛(Mahathir Bin Mohammad) 전 총리는 ‘청렴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Bersih, Cekap, Amanah)’을 제시했고, 압둘라 바다위(Abdullah Badawi) 전 총리는 ‘문명 이슬람(Islam Hadhari)’, 나집 라작(Najib Razak) 전 총리는 ‘공유 번영 비전(Shared Prosperity vision)’을,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전 총리는 ‘말레이시아 가족(Keluarga Malaysia)’,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전 총리는 ‘돌봄 정부(Kerajaan Prihatin)’를 내세웠다. 안와르의 ‘마다니 경제’가 역대 총리들의 슬로건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어떠한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준비된 정책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선거 이전 안와르는 자신의 책 *Developing a Madani Nation: Vision and Framework for Reformation Policy* 에서 이미 ‘마다니’라는 용어를 앞에 내세웠다. 두 번째 차별성은 마다니 경제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교육이나 기술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준비했다는 점이다. 물론 그 이전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와르의 마다니 경제 프레임워크가 혁신, 교육,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방향의 균형이 잘 잡혀있다.

마다니 경제가 담고 있는 6개의 가치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투영되어 실행되고 있는가는 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은 야콥 전 총리의 예산안은 의회 해산으로 사라졌고²⁾, 2023년 2월 24일 안와르 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 말레이시아 마다니 구축(Malaysia membangun Madani)이라는 주제로 2023년 예산을 재조정하여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서민 및 취약계층(Below 40, B40로 표현)을 포용적 성장과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 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중하위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만 5,001~10만 링깃 소득구간의 세율을 2%p 인하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납입자본금 250만 링깃(한화 약 7억 5,000만 원) 이하, 연간 매출액 5,000만 링깃(한화 약 150억 원) 이하인 내국 법인에 대해 2023년 회계연도 법인세율이 2%p 인하되었고, 중소기업 법인세율도 17%에서 15%로 감면했다. 또한 소기업 금융을 위해 400억 링깃(한화 약 12조 원), 벼 농가에 16억 링깃(한화 약 4,789억 원)에 달하는 다양한 보조금과 인센티브 예산, 그리고 벼 농가 24만 명에게 3개월 또는 한 시즌 동안 매달 200 링깃(한화 약 6만 원)의 현금지원도 배정해 놓았다.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는 인프라와 교육 예산에 반영되었다. 전체 예산의 25.2% (990억 링깃)가 개발 부문에 배정되었고,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가 552억 링깃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

2) 3,723억 4,000만 링깃(한화 약 114조 911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개발지출 항목과 저소득층 지원, 개인소득세율 2%p 감면, 공무원 월급 인상 등이 포함 예산안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개발지출 항목도 사상 최대 규모인 950억 링깃, 운영비(operating costs)는 2,723억 4,000만 링깃이 배정되었다. 이에 더해 예산안은 저소득층 가구에 2,500 링깃을 현금 지원하는 데에 78억 링깃을 배정했다. 그러나 의회 해산으로 이 예산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그림 1] 말레이시아 2023년 예산안 배분



출처: Ministry of Finance Malaysia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마다니 경제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그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다룰 예산 연구소(Institute Darul Ehsan)의 이스마일 유습(Ismail Yusop) 원장은 말레이시아 마다니를 총체적이고 상호 연결된 여섯 가지 구성 요소에 기반한 프레임워크로서, 국민국가의 기초가 되는 핵심 가치의 집합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페리스 대학교수 Hunter(2023a, 2023b)는 ‘말레이시아 마다니’는 정부의 프레임워크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내각과 ‘통합 연합’의 구성 정당성이 이를 모든 정책의 기초로 삼는 데 동의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마다니는 6개의 가치를 담은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개념이 사고와 철학, 정신적인 측면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고, 보니 국민들이 이를 인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와 비판을 의식한 안와르 총리는 2023년 8월 6개 주에

서 치러질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7월 27일 마다니 경제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열었다. 말레이시아의 단기, 중기 목표가 무엇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과 보다 구체화된 정책들이 제시되었다(Madani Economic Narrative). 이 때 등장한 정책이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New Industrial Master Plan 2030, 이하 NIMP 2030)이다. 마다니 경제 내러티브에서 중요한 두 개의 핵심 사항은 아시아의 리더급으로 국가경제 성장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핵심성과지표와 목표치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었고, 인간개발지수와 부패인식지수 등 말레이시아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문에서 세계 순위 향상 계획도 포함되었다. 싱가포르의 ISEAS 연구원 Cassey Lee는 비록 안와르 이브라힘의 경제 리더십이 이번 경제 내러티브를 통해 비약적으로 강화하지는 못하겠지만, 마다니 경제의 유용한 비전과 로드맵이 제시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프레임워크가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Fulcrum 2023/08/10).

2) 신산업 마스터 플랜 2030

NIMP 2030은 말레이시아 국가 경제를 향상시키려는 정부의 청사진으로 제조업 섹터를 살리고 아시아의 리더로 등극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산업정책 백서이다. [표 3]은 마스터플랜 4대 미션과 비전 및 목표, 현황을 보여준다.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61% 증대, 연평균 성장률 6.5%가 2030년 핵심 달성 목표이다. 제조업 분야 고용도 2030년까지 330만 명으로 20% 증가(2022년: 270만 명)시키고, 중간 급여를 매년 9.6% 상승시켜 4,510링깃으로 올린다는 목표가 세워졌다. NIMP 2030 안에는 4개의 미션에 총 21개의 전략과 62개의 액션플랜이, 그리고 인에이블러에도 4개의 전략과 19개의 액션플랜이 담겨 있다. 전지전자와, 화학, 전기차, 우주항공, 제약과 첨

단소재 등 총 21개의 섹터가 NIMP 2030 육성 대상에 해당되며, 은행업과 보험, 건설 서비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래 전략산업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의지의 표명이다. NIMP 2030은 1단계(2023~2026)와 2단계(2027~2030)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마스터플랜의 기반을 다지는 기간이라면, 2단계는 경제 성장산업을 다양화하고, 규모를 확장시켜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참여도를 끌어올리는 것을 실현하는 단계이다.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은 경제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중기 계획이며 구체적인 산업분야와 전략이 담겨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정책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득 국가로의 진입과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이라는 원대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 재원 82억 링깃을 투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950억 링깃(한화 약 26조 9,506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산업 육성은 정부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민간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해외 투자유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NIMP 2030 산업개발펀드(NIDF), NIMP 2030 전략적 공동투자펀드(CoSIF) 등이 결성되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투자로 새로운 산업 분야를 육성하거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는 충분치 않다. 민간 부문 특히 해외투자유입은 해당 산업분야에 따른 지원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NIMP 2030에서 중요한 지점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 집중 전략 산업이 무엇이며 실행전략이 무엇이나에 따라 해외투자 유입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NIMP 2030의 목표가 원대해서 7년이라는 기간이 목표달성에 부족하고, 지나치게 다양한 목표와 비전이 들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Kok and Tham 2023).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자원과 지원이 취약하고, 산업 공급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Tham Siew Yean(2023)은 전기차(Electric Vehicle) 사례로 산업 정책이 부문별 접근 방식에서 NIMP 2030의 미션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4개의 미션 중에 넷제로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EV 확대와 연결된다. 그런데 EV 개발과 밸류체인 육성 목표 안에는 저가의 EV 개발, EV 가치 사슬의 공급 측면 개발이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자동차정책이나 기존의 전기차 공급 계획은 인센티브제공과 충전인프라 구축 등 프리미엄 부문의 수입 전기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기차가 넷제로 전환을 위한 수단이 되려면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위한 연료 보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 국가 전력망의 재생 가능 자원을 늘려야 하는 등 전기차 부문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표 3]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NIMP 2030) 4대 미션, 6대 핵심 비전 및 목표

4대 미션 (NIMP 2030)	세부내용	비전 및 목표	성과지표(KPI)	현행	2030년 달성 목표
①경제복잡성제고 (Advance Economic Complex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IC디자인, 웨이퍼제조), 화학(특수화학, 첨단소재), 항공등핵심 산업에서 고부가가치밸류체인으로 이동촉진 혁신중소기업육성및연관산업간밸류체인통합, 고부가가치의활동을 지원하는산업생태계조성 도전적인R&D과제중심으로산학R&D연계강화, 국가지식재산권강화등을통한국가연구개발및상업화(RDCI)역량확대 FTA 활용을제고, 비관세장벽완화, 지정학적상황을고려한FTA의개선등을통한제조업수출확대지원 	①경제복잡성제고 (Economic Complexity)	GDP 내 첨단 제조업 및 서비스 부가가치 비중	GDP 대비 8.1%	GDP 대비 15%
			GDP 대비 R&D 투입 비중	1%	3.50%
		②고수입일자리창출 (High-Value Job)	제조부문유발고숙련일자리수		700,000개 (7년간)
②디지털전환가속화 (Tech up for Digital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강, 시멘트, 화학/정유등탄소다배출업종을대상으로저탄소기술및CCS도입, 탄소세및탄소정책도입등산업계탈탄소화유도 		제조 부문의 임금 중간값	1,975 MYR	4,510 MYR
③국내외 산업간		전체 기업대비 수출 중심 중소기업 비중	11.70%	25%	

Vibrant 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부문의에너지효율향상및재생에너지사용확대 전기차,CCUS,순환경제등새로운녹색성장분야에서의성장기회창출 에코산업단지(Eco-IndustrialPark)등기존산업단지의그린화촉진 	연계성확장 (Extended Domestic Linkages)			
④경제안보 및포용성강화 (Safeguard Economic Securityand Inclusivity)	<p>공급망취약핵심품목식별,글로벌공급망협력확대,5대핵심광물들의다운스트림산업개발을통한공급망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토류,보크사이트,아연광,구사,고령토 업종별기후적응모델개발,기후적응제품및서비스산업육성,핵심경제인프라(전력,항구등)의기후적응력제고등제조업의기후탄력성강화 지역균형발전을위한기존산업단지의활성화및잠재력있는신규산업단지발굴및조성 부미푸트라기업의역량확충및여성고숙련일자리진출확대 <p>*말레이계기업을지칭</p>	④산업단지 고도화 (Develop New and Existing Clusters)	제조업의 국내 부가가치	49% (2018년)	65%
③NetZero 달성 (Push for Net Ze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부문의혁신적기술도입촉진, 산업계수요충족디지털인프라구축 가속화(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보안, AI 네트워크 등) 저숙련일자리를고숙련자리로대체,산업계자동화도입촉진 국내디지털및기술솔루션개발기업육성, 제조부문에생성형AI솔루션 적용기반조성, 제조산업데이터뱅크인국가디지털플랫폼구축및데이터분석역량확충등제조부문의기술혁신촉진 정부서비스의디지털화, 통합화를 통한업무효율성제고 	⑤포용성 확대 (Improve Inclusivity)	GRDP(State) 내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 비중	13%	25%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의 제조업 부가가치	22%	30~35%
			ESG Index	56.5	75~100
		⑥ESG경영 확산 (Enhance ESG Practices)	탄소배출량 감축	33%	45%

출처: NIMP 2030

3) 안와르 경제정책: 성과와 한계

안와르 정부의 경제목표는 물가안정과 안정적 성장이었다. 먼저

최우선 목표였던 물가안정은 목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평균 물가상승률이 3.38%, 2023년 1월과 2월 3.7%를 기록했으나 이후 점차 낮아지며 2023년 11월과 12월 1.5%로 하락했다. 식품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했으나, 2021년 2월 이후로 상승폭(2.6%)이 가장 작아지면서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에 경제성장률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IMF는 민간 소비가 되살아난 덕분에 2023년 경제성장률이 4%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IMF 2023), 2024년 1월 4일 말레이시아 통계청(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은 2023년 GDP 성장률이 4~5%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2024년 2월 발표된 최종 수치는 예상과 다르게 3.7%에 그쳤다. 국내 소비와 관광업 회복, 건설경기 회복 등이 성장을 이끌었지만,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수출 경기는 회복되지 못했다.

[그림 2] GDP 성장률 (2022.1Q ~2023.Q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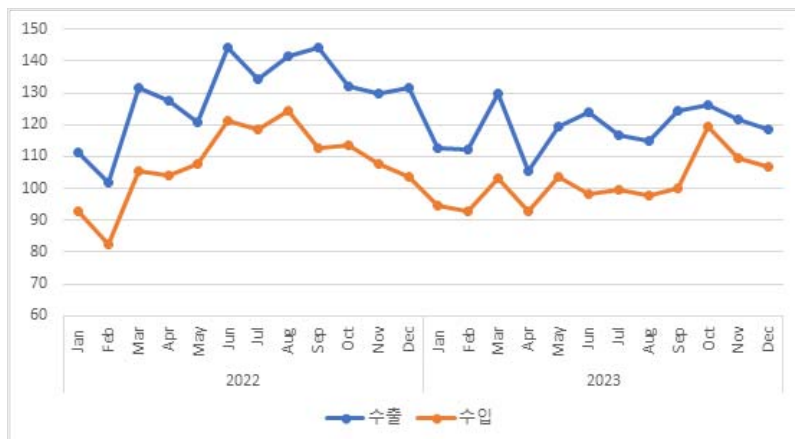


출처: Bank Negara Malaysia

무역수지를 보면 수출이 수입을 능가하며 무역수지는 흑자가 지속되었지만 2022년 대비 무려 16.4%나 감소했다. 2022년 전기전자 제품과 석유, 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수요 증가에 의해

수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2023년 글로벌 경기 위축 탓에 교역규모가 7.3%나 감소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요인도 있겠으나 팜오일 및 관련 농수산물의 수출은 무려 27.2%나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아세안,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규모가 전부 감소하였으며, 특히 중국과 EU 감소폭이 각각 8.7%, 10.5%로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서비스 부문에서 관광업의 회복이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림 3] 말레이시아 수출입 추이(2022~2023.11) 단위: 십억 링깃



출처: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안와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절반의 성공이다. 물가안정은 이뤄졌지만, 경제성장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물론 성장 부진의 원인을 마다니 정책의 실패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과 기저효과에 따른 낮은 성장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3년 예산안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 중소기업 지원, 가장 많은 예산을 교육부에 배정한 것 등은 마다니 경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닭고기와 달걀에 대한 보조금 중단, 고소득 가구에 대한 전기 보조금 인상 등

보조금 합리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점진적인 조치는 말레이시아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에 접근하는 개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마다니 경제정책의 점진적 실행 결과 내수 소비가 4.7%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2023년 1분기 3.5%에서 4분기 3.3%로 낮아졌다.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실패한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수출의 감소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가중, 원자재 가격 하락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다변화와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은 호주, 칠레, 인도, 일본, 뉴질랜드, 파키스탄과 터키 등 7개 국가에 불과하고, 지역간 FTA는 아세안을 통한 7개 그리고 RCEP, CPTPP에 참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수출에서 지난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여준 대상은 EU이다. 말레이시아와 EU 사이 FTA 협상은 2010년에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EU와의 FTA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New Stratis Times 2023/11/27).

마다니 경제가 가치와 비전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NIMP 2030은 산업 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중기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중간소득의 함정에 빠진 사례로 언급되는 말레이시아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안와르 총리는 NIMP 2030을 통해 구조적 전환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할 역량 개발과 E&E, 화학, EV, 항공우주, 제약, 첨단소재 분야의 발전을 강조했다. 하지만, 2023년 9월 발표 이후 4개월의 짧은 실행 기간으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서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 투자 인센티브가 아세안 내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빈약하다. 예를 들어 전기차 투자기업에 대해 태국

투자청은 법인세 50% 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면서 중국과 일본기업의 투자가 급증하였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베트남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도체는 핵심 국가사업으로 지정되어 세금 감면과 토지 임대료 지원의 인센티브에 더해 미국과 전략적 포괄적 관계로 격상하면서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NIMP 2030의 성패는 말레이시아만의 경쟁우위를 보여줄 과감한 인센티브, 빠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표에 달려있다.

4) 2024년 말레이시아 경제전망과 예산안

2024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중국과 EU의 경제가 여전히 강한 회복세를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수출도 2022년과 같은 강한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 전자 부분은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S&P Global 2023).

S&P Global(2023)은 인텔과 인피니온 등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신규공장 증설이 완성됨에 따라 페낭-클림 산업 단지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에도 민간 소비와 투자 회복이 성장률을 뒷받침하면서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 또 다른 성장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이다. 말레이시아 정부 2024년 예산안은 총 3,3,938억 링깃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비록 개발 지출 해당 예산이 2023년 970억 링깃에서 2024년 900억 링깃으로 줄어들었으나, 2023년 예산에는 국영 펀드 1Malaysia Development Berhad의 부채 상환을 위한 132억 링깃이 포함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2024년 인프라 투입 증가로 봐야 한다. 특히

2024년 페낭 경전철(LRT: Penang Light Rail Transit), 사바-사라왁 연결도로 (Sabah-Sarawak link road), LRT3 복원 사업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고, 용평 우타라에서 세데낙 사이 플러스 고속도로 2단계 공사, 반다르 바루 뚝중, 코타 바루, 클라탄과 세비안에서 사바의 쿠닷까지의 도로 개선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전철 MRT3이나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고속철도, 조호 LRT 등 숙원사업에서도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4년 예산안은 안와르 총리가 직접 발표했으며 “Reformasi Ekonomi, Memperkasakan Rakyat”(경제 개혁 및 국민의 권한 강화)를 주제로 달았다. 그만큼 개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 합리화와 세제 정비를 뜻한다. 연료와 쌀, 식용유, 전기, 통행료, 닭고기, 달걀 등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다. 보조금 가운데 그 비중이 70%를 넘는 것은 연료보조금이다. 2022년에는 COVID-19 기금과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방정부 보조금 총액이 703억 링깃으로 최대를 기록하였고, 2023년 다소 감소해 642억 링깃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810억 링깃을 지출한 것으로 재무부는 추정하고 있다³⁾. 보조금 지급은 단순히 정부 예산 지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가격 왜곡과 생산성이 더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기회를 잃게 만든다. Yingzhu Li et.al.(2017)은 연료 보조금을 제거하면 경제 효율성이 증가해 GDP의 0.65%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연료 보조금 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지지율을 의식해 누구도 선뜻 제도를 바꾸는 데 나서지 못했다. 안와르 총리는 보조금을 하위계층 위주로 지급되도록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전기소비량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화하여 전체 보조금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2024년 보조

3) Ministry of Finance, Section 3 Federal Government Expenditure

금 및 사회적 지원에 할당된 예산 비중은 13.4%로 2023년 11.3%보다 증가했지만, 금액은 528억 링깃으로 2023년의 642억 링깃보다 감소했다. 또한 정부 재정구조를 바꾸기 위해 비상장주식 처분 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서비스세율은 6%에서 8%로 인상하였으며, 고가품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⁴⁾.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가당음료에 부과된 소비세율이 리터당 0.40링깃에서 0.50링깃으로 인상되었고,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신산업 마스터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투자유치의 유인책으로 녹색투자 세액 공제, 신규투자기업 세제 혜택, 녹색투자기업의 자산 구매시 세액 공제를 실시하고, ESG 관련 프로젝트에도 세제 혜택을 연장, 확대하는 방안이 예산안에 담겨있다. 또한 2025년부터 글로벌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문인력이 귀환할 경우 5년 연속 15%의 고정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모두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말레이시아의 경쟁우위를 호소하려는 전략이다.

V. 외교정책

안와르는 오랜 정치경력과 해외 네트워크로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일 것으로 기대되었고 실제 집권과 함께 국내정치적 혼란과 COVID-19 등으로 소홀해진 외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취임 이후 1년간 안와르는 경제, 정치, 국제규범 차원에서 크게 세 지역, 즉 아세안과 중국, 중동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했다.

먼저, 1MDB 스캔들 이후 하락한 국가신용도와 줄어든 해외투자

4) 보석과 시계 등 특정 고가품에 대해 상품가격의 임계값 기준 5~10% 수준의 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과세 방법 및 시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KPMG 2023).

를 복구하기 위한 소위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Tan 2023). 2023년 1월 브루나이를 방문해 석유, 가스, 관광, 할랄푸드와 관련된 상호투자 양해각서를 맺은 것을 시작으로,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 ASEAN 역내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힘썼다(Sahimi 2023). 세일즈 외교의 가장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이다. 중국은 2009년부터 말레이시아의 최대 교역 파트너다. 2022년 양국 간 교역액은 8,760억 링깃으로 전년 대비 15.6%나 증가했지만 2023년에는 감소했다. 2023년 안와르 는 두 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3월에는 중국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 참여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디지털 경제, 신재생에너지 부문 등과 연계해 투자협력을 하자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1MDB 스캔들로 논란이 됐던 동부해안철도(East Coast Rail Link)를 포함해 기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자는 제안을 했다(Saieed 2023). ECRL은 총 사업비 749억 6,000만 링깃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이나 스캔들과 공사대금 문제로 중단되었다. 9월에는 난닝에서 열린 ‘중국-아세안 엑스포(CAEXPO) 2023’에 참석해 중국의 추가적 투자에 대해 합의했다. 말레이시아의 방문에 중국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700억 링깃(한화 약 50조 8,821억 원) 대(對)말레이시아 투자를 약속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 저장 지리 홀딩(Zhejiang Geely Holding Group)의 20억 링깃 초기 투자와 320억 링깃에 달하는 프로톤(Proton)의 자율형 첨단 산업단지 프로젝트 투자, 정유 기업 룡셴 석유화학(Rongsheng Petrochemical Co.)은 팽에랑(Pengerang)에 800억 링깃 규모 프로젝트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국과 함께 마무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일즈 외교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중동이다. 2023년 3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1MDB 스캔들 이후 경색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이를 시작으로 중동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에도 나서 10월 UAE로부터 400억 링깃의 상당한 투자

를 약속 받았다(Sahimi 2023). 9월에는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구글, 보잉, 지멘스 등 다국적 기업들과 만나 투자 약속을 하는 등 2023년 10월까지 총 17번의 해외 순방으로 2,000억 링깃 상당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산된다(Vethasalam et al. 2023).

다음으로 안와르는 비동맹 및 협력이라는 대원칙 하에 아세안 역내에서의 지역 평화 중재자 역할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에도 나섰다. 외무장관으로 임명된 잠브리 압둘 카디르(Zambry Abdul Kadir)는 취임 첫날 아세안 역내 국가와의 양자 관계를 강화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안와르 정부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실제 안와르는 1월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지를 인도네시아로 결정한 뒤 태국, 싱가포르 등 미얀마를 제외한 주변국을 방문하며 양자관계 강화를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9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은 강대국의 대리인이 되지 않겠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 총리를 만나 옵서버 자격인 동티모르를 승격하는 것과 관련된 회담을 가지는 등 아세안에서의 역할 강화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또한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포함된 아세안이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중심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충돌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4월 안와르가 남중국해와 관련해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대내적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가졌으나 미국과는 회담이 없었던 점 때문에 중국으로 말레이시아의 외교정책이 기울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Tan 2023). 아세안을 둘러싼 지정학 차원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와르 정부가 말레이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균형 잡힌 적극적 외교가 필

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규탄하고 인권보호를 호소하는 등 국제규범 준수와 관련된 외교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안와르는 출범 초기부터 인권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안와르는 정치 활동을 하는 동안 오랜 기간 정치적 탄압과 수감생활 등을 경험하는 동안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국제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의 지원을 받아온 말레이시아 유일의 총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2023년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는 미얀마 군부가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점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아세안 평화를 위협할 경우 미얀마의 아세안 회원국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얀마 위기가 개별 국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보와 다른 나라 주민 후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아세안이 평화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는 것은 2025년 아세안 의장국이 되는 말레이시아의 입지를 다지고 안와르 총리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2023년 10월 벌어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전 세계 지도자 가운데 강력한 규탄을 하는 대표적 인물이 되고 있다. 안와르는 1970년대 학생 지도자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이어 온 이후 현재까지 인권관련 활동을 지속해 오며 이를 인권외교라는 안와르의 확고한 외교원칙으로 알려지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세일즈와 불안이 가중되는 국제정치에서 균형 외교, 평화의 중재자로서 말레이시아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안와르의 행보는 숨 가쁘게 진행되었지만 성과는 제한적이다.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UKM: Natioal University of

Malaysia) 국제관계전략학연구소(Strategic Studi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의 후치우핑(Hoo Chiew Ping) 박사는 2024년이면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안와르의 방문은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남겼고 양국의 오랜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맞이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The Edge 2023/03/30).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말레이시아의 대 중국 수출은 감소했다. 인권보호와 평화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했지만,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에 적극적인 개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력한 지지는 중동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지점으로 남아 있다. 안와르의 대외정책의 기초가 유지되고 향후 국제무대에서 그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국내정치 및 경제적 안정이다. 불안한 정권 장악력은 대외 행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안와르노믹스의 경제정책이 절반의 성공이 아닌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아세안과 중동, EU 등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투자유치와 수출 확대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교정책은 국내정치의 연장선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이 현재의 말레이시아에 온전히 적용되는 표현이 될 것이다.

VI. 결론: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고소득 국가로 향하는 길

2023년 한 해는 안와르 통합정부의 정권안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분석된다. 주의회 선거에서 3개 주를 지켜낸 점, 취임 초기 148석에서 152석으로 의석수가 확장된 점, Bersatu 의원 유입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이 이를 방증한다. 말레이-이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슬람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한편으로

기존 지지층의 결집을 유지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시도되고 있다. 통합정부는 2022년 총선에서 BN에 비교해 낮은 청년층 지지를 얻은 것을 반면교사하여 청년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하는 등 정권안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이뤄졌다.

한편 2023년은 안와르 정부가 가진 한계를 더욱 명확히 확인하는 한 해가 되었다. 통합정부는 개혁의 추동력이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말레이-이슬람의 지지를 얻기 위해 UMNO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왔다. 다양한 이슬람 지원책도 이뤄졌지만 주의회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PAS의 지지가 확대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럼에도 2023년 12월 단행된 첫 개각에서는 기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UMNO와 관계에 큰 변화를 두지 않는 현상유지(status quo) 전략을 선택한다. 이는 개혁보다는 여전히 안정을 중시하고 있는 안와르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UMNO의 경우 탁란 정치를 통해 자히드의 혐의 기소가 취하되고 나집이 부분사면을 받는 등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UMNO와의 동거가 계속되는 한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이 더욱 추동력을 얻기 힘들다고 전망하는 이유는 취임 1년을 맞아 이뤄진 여론 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제문제가 안와르 총리에 대한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안와르 정부가 내세운 마다니 경제는 2022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목표한 4%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물가안정과 서민 생활 안정화라는 단기의 정책적 목표에 근접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다니 경제가 갖는 한계, 즉 근본적으로 모호한 ‘가치’가 지향하는 목표와 이를 구현하는 방법론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이를 보완하는 NIMP 2030이 제시되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진보에 맞춰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계획대

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1991년 당시 총리였던 마하티르가 비전 2020을 내세우며 30년 안에 고소득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2022년 1인당 GNI는 11,830달러로 고소득을 구분짓는 13,845 달러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1인당 GDP가 13,000 달러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소득 국가로의 진입은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1996년 상위 중간소득 국가(upper-middle-income country)에 진입했던 말레이시아는 소위 중진국 함정에서 25년 동안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경제 개혁과 혁신, 산업구조 전환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장기적인 경제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개혁조치와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보조금 정책을 수정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기늠할 수 없다. 연료보조금을 손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정부재정의 부담을 안고 가느라 다른 산업 지원이나 교육, 디지털 전환과 그린 인프라 투자에 배정할 예산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높이기 어렵다. 국가적 기회비용인 셈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외국기업들의 투자와 기술이전으로 산업생태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주변의 베트남이나 태국, 싱가포르보다 우호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말레이시아 수출과 외자유치의 대표산업인 반도체만 보더라도 동남아 3개국의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인텔은 말레이시아에만 투자를 확대한 것이 아니다. 베트남에도 투자했으며, 최근 일본과 동남아 3개국을 방문한 NVIDIA 젠슨 황은 말레이시아에서는 AI를 언급하고 베트남 총리와 만났을 때는 베트남을 제2의 생산기지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세계 3위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글로벌파운드리는 40억 달러(약 5조 3000억 원)를 투자해 싱가포르 반도체 공장을 증설했다. 말레이시아가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자리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산업 환경의 인프라, 세제혜택 등 투자

와 인센티브 강화가 필수적이다.

말레이시아는 이제 고소득 국가의 문턱까지는 다가왔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4.5%의 경제 성장률이 최소한 유지된다면 곧 상위 중간 소득 국가에서 마침내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은 말레이시아가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해이다. 안와르의 통합정부가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안와르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나타나 정치적 불안정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보다 안정을 택한 안와르가 개각에서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가 2024년 최대 과제이자 주목할 부분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형중 · 황인원. 2023. “말레이시아 2022: 안와르의 집권과 개혁과제.” 『동남아시아 연구』 33(2): 1-29.
- 말레이시아 총리실 공식 웹사이트. <https://www.pmo.gov.my/2023/05/unity-govt-national-convention-proof-of-governments-stability-strength-pm-anwar/>
- Amsyar, Alif. Baker, Jalelah. 2022. “PAS and How It Rose to Become The Party With The Lion’s Share of Seats In Malaysia’s Parliament.” *CNA*. December 6. <https://www.channelnewsasia.com/asia/malaysia-ge15-pas-perikatan-nasional-3125256>. (검색일: 2023.12.29.)
- Anand, Ram. 2023. “Elections In Six Malaysian States Expected To Be Held by July.” *The Straits Times*. April 24.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state-polls-in-six-malaysian-states-expected-to-be-held-by-july>. (검색일: 2023.12. 03.)
- Asia Development Bank. 2022.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2: Supplement December 2022.”
- Azhar, Kamarul. and Aziz, Adam. 2023. “Cover Story: Difficult for Unity Government to Fall But Support of Fence-Sitters Needed.” *The Edge*. December 14. <https://theedgemalaysia.com/node/692743> (검색일: 2023.12.29.)
- Bank Negara Malaysia. 2024. *BNM Quaterly Bulletin* 38(4).
- BediRashvingeet. 2023. “‘Seeking More Honey’: Why Malaysia’s Islamist Party PAS Wants to Woo Non-Muslim Voters.” *CNA*. October 21. <https://www.channelnewsasia.com/asia/malaysia-pas-hadi-awang-muslim-malay-anwar-muhyiddin->

3863046. (검색일: 2023.12.29.)

Bermana. 2023. “Unity Govt National Convention Focuses on People, Country's Economy.” *NewStraitsTimes*. May 13.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3/05/908863/unity-govt-national-convention-focuses-people-countrys-economy>. (검색일: 2023.11.7.)

Chai, James. 2023. “Malaysia’s First Unity Government Convention: The Art of Keeping Enemies Close.” *Fulcrum*. May 25. <https://fulcrum.sg/malaysias-first-unity-government-convention-the-art-of-keeping-enemies-close/>. (검색일: 2023.11.5.)

Chan, Kok Leong. 2023. “Malaysia PM’s Rival Muhyiddin to Step Down as Party President.” *BNN Bloomberg*. November 24. <https://www.bnnbloomberg.ca/malaysia-pm-s-rival-muhyiddin-to-step-down-as-party-president-1.2002829>. (검색일: 2023.12.11.)

Chin, James. 2023. “Commentary: Malaysia opposition leader Muhyiddin pulls off shrewd political move with ‘24-hour resignation’.” *CNA*. November 29. <https://www.malaysia-today.net/2023/11/29/commentary-malaysia-opposition-leader-muhyiddin-pulls-off-shrewd-political-move-with-24-hour-resignation/>. (검색일: 2023.12.11.)

CNBC. 2023. “With Another Ex-prime Minister Charged, Malaysia Risks Further Turmoil.” *Reuters*. March 10.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with-another-ex-prime-minister-charged-malaysia-risks-further-turmoil-2023-03-10/>. (검색일: 2023.12.11.)

Gammon, Liam. 2022. “Malaysia Gets a Second Shot at

- Democratisation Under Anwar.” *East Asia Forum*. December 20. <https://eastasiaforum.org/2022/12/20/malaysia-gets-a-second-shot-at-democratisation-under-anwar/>. (검색일: 2023. 11.14.)
- Hunter, Murray. 2023a. “Malaysia Madani: a guiding framework or folly?” *Free Malaysia Today*. Jan. 20.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opinion/2023/01/20/malaysia-madani-a-guiding-framework-or-folly/>
- _____. 2023b. “The Madani Government Is All Talk No Action.” *Malaysia Today*. September 7. <https://www.malaysia-today.net/2023/09/07/the-madani-government-is-all-talk-no-action/>. (검색일: 2023.12.29.)
- Ibrahim, Junaid. 2023. “Muhyiddin Seeks to Strike Out Jana Wibawa Charges.” *The Star*. September 20.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3/09/20/muhyiddin-seeks-to-strike-out-jana-wibawa-charges>. (검색일: 2023.12.15.)
- IMF. 2023. “IMF Staff Completes the 2024 Article IV Mission to Malaysia.”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12/14/pr23448-malaysia-imf-staff-completes-2024-article-iv-mission> (검색일: 2023.12.16.)
- Jalil, Mohd Amin. 2023. “PH-BN Partnership Not The Main Reason Why Voters Chose PN: Loke.” *NewStraitsTimes*. August 14. <https://www.nst.com.my/news/politics/2023/08/943203/ph-bn-partnership-not-main-reason-why-voters-chose-pn-loke>. (검색일: 2023.12.23.)
- Kok, Chee Kheong. Tham, Zhi Jun. 2023. “Moonshot: Malaysian government launches the new industrial Master Plan 2030” *SKRINE*. September 8. <https://www.skrine.com/insights/alerts/>

september-2023/moonshot-malaysian-government-launches-the-new-ind (검색일: 2024.2.22.)

Latiff, Rozanna. Budiman, Yuddy. 2023. “Malaysia’s Political Blocs Split Victories in Regional Polls Amid Opposition Gains.”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malaysians-vote-state-elections-test-anwar-2023-08-12/> (검색일: 2023.12.23.)

Lee, Cassey. 2023. “Will Anwar’s “Madani Economy” Narrative Strengthen His Economic Leadership?” *Fulcrum*. August 10. <https://fulcrum.sg/will-anwars-madani-economy-narrative-strengthen-his-economic-leadership/> (검색일: 2024.1.3.)

Lemiere, Sophie. 2023. January 17. “Anwar Ibrahim: Between Campaign Promises and Real Politics.” CSIS. <https://www.csis.org/analysis/anwar-ibrahim-between-campaign-promises-and-real-politics>. (검색일: 2023.12.30.)

Malaysia NOW. 2023. “Malay Vote Remains Elusive for PH-BN, But Selangor Still Hard to Get for PN Unless.” August 11. <https://www.malaysianow.com/news/2023/08/11/malay-vote-remain-elusive-for-ph-bn-but-selangor-still-hard-to-get-for-pn-unless>. (검색일: 2023.12.11.)

Merdeka Center. 2023a. “Anwar’s Approval Rating At 68 Percent, Says Merdeka Center.”

_____. 2023b. “One Year Anniversary of The Unity Government: Survey Rating Outlook.”

Mishra, Rahul. “Malaysia’s State Elections Are Not a Litmus Test for PM Anwar’s Unity Government.” *The Diplomat*. August 11. <https://thediplomat.com/2023/08/malaysias-state-elections->

- are-not-a-litmus-test-for-pm-anwars-unity-government/. (검색일: 2023.12.05.)
- New Straits Times 2023. “Mixed assessment on Madani govt's one-year performance” November 27.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3/11/983328/mixed-assessment-madani-govts-one-year-performance> (검색일: 2023.12. 20.)
- Ostwald, Kai. 2023. “Why Malaysia’s Unity Government will Survive.” ISEAS. <https://www.iseas.edu.sg/articles-commentaries/iseas-perspective/2023-36-why-malaysias-unity-government-will-probably-survive-by-kai-ostwald/>. (검색일: 2023.12.13.)
- Palansamy, Yiswaree. 2022. “PM Anwar Calls for Govt Departments to Be Thrifty, Fewer Grand Celebrations, End to VIP Batik-gifting Culture” *malaymail*. December 22.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2/12/22/pm-anwar-calls-for-govt-departments-to-be-thrifty-fewer-grand-celebrations-end-to-vip-batik-gifting-culture/46679>. (검색일: 2023.12.30.)
- Reuters. 2023. “Malaysia Opposition Leader to Step Down As Party President.” November 24.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malaysia-opposition-leader-step-down-party-president-2023-11-24/>. (검색일: 2023.12.11.)
- S&P Global. 2023. “Malaysian GDP growth improves in third quarter of 2023.” November 27.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mi/research-analysis/malaysian-gdp-growth-improves-in-third-quarter-of-2023.html> (검색일: 2023.12.15.)
- Sahimi, Adlin. 2023. “The One-year Tour: Ten Countries Anwar Visited Since He Became PMX” *Sinardaily*. 19 November.

<https://www.sinardaily.my/article/212752/focus/national/the-one-year-tour-ten-countries-anwar-visited-since-he-became-pmx> (검색일: 2024.02.14.)

Saieed Zunaira. 2023. “Malaysian PM Anwar Calls For Revived push for China’s Belt and Road Projects” *The Straits Times* 30 March.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malaysian-pm-anwar-calls-for-revived-push-on-china-s-belt-and-road-projects> (검색일: 2024.02.14.)

Strangio, Sebastian. 2023. “Malaysia Readies fo State Polls That Will Test PM Anwar.” *The Diplomat*. August 12. <https://thediplomat.com/2023/08/malaysia-readies-for-state-polls-that-will-test-pm-anwar/>. (검색일: 2023.12.14.)

Tan Angeline. 2023. “Foreign Policy Must Step Out of ‘Mute’ Mode” *ISIS Malaysia*. <https://www.isis.org.my/2023/01/18/foreign-policy-must-step-out-of-mute-mode/> (검색일: 2024.02.13.)

Tan, Angeline. 2023. “Recapping the First Year of Malaysia’s Foreign Policy Under Anwar Ibrahim” *The Diplomat*. December 18. <https://thediplomat.com/2023/12/recapping-the-first-year-of-malaysias-foreign-policy-under-anwar-ibrahim/> (검색일: 2024.02.13.)

Tan, Ariel. 2023. “Commentary: Malaysia PM Anwar's latest Cabinet reshuffle is no course correction, but an attempt to maintain power.” *Mtoday*. December 20. <https://www.todayonline.com/commentary/commentary-malaysia-pm-anwars-latest-cabinet-reshuffle-no-course-correction-attempt-maintain-power-2329336>. (검색일: 2024.01.02.)

Tan, Tarrence. Martin Carvalho, and Rahimy Rahim. 2023. “2/3

- Majority Again After 15 Years.” *The Star*. February 13.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3/02/13/23-majority-in-15-years>. (검색일: 2023.12.14.)
- Teoh, Shannon. 2023. “Malaysia State Polls: PH and PN Retain Three States Each in Status Quo Result.” *The Straits Times*. August 13. (검색일: 2023.12.14.)
- Tham Siew Yean. 2023. “The Critical Role of Electric Vehicles in Malaysia’s New Industrial Master Plan (NIMP 2030).” ISEAS Perspective
- The Business Times. 2023. “Malaysia State Polls: PH and PN Retain Three States Each in Status Quo Result.” August 13. <https://www.businesstimes.com.sg/international/asean/malaysia-state-polls-ph-and-pn-retain-three-states-each-status-quo-result>. (검색일: 2023.12.14.)
- The Economist. 2023. “In Malaysia, Anwar Ibrahim Survives His First Electoral Test.” August 17. <https://www.economist.com/asia/2023/08/17/in-malaysia-anwar-ibrahim-survives-his-first-electoral-test>. (검색일: 2023.12.12.)
- The EDGE Malaysia. 2023 “Anwar arrives in Beijing to continue official visit to China” March 30. <https://theedgemalaysia.com/node/661482> (검색일: 2023.12.12.)
- The Star. 2023. ‘Infrastructure projects to spur domestic demand’ 21 November 21. <https://www.thestar.com.my/business/business-news/2023/11/21/infrastructure-projects-to-spur-domestic-demand> (검색일: 2023.12.12.)
- The Straits Times. 2023. “Malaysian Opposition Leader Muhyiddin Makes U-turn on Stepping Down As Party President.”

November 25.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malaysian-opposition-leader-makes-u-turn-stepping-down-party-president-2023-11-25/>. (검색일: 2023.12.19.)

Vethasalam, Ragananthini, Martin Carvalho, Yunus Arfa. and Mahadhir Monihulidin. 2023. “Anwar: Govt Secured Over RM200bil in Investment Commitments From Official Overseas Trips.” *The Star*. October 10.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3/10/10/anwar-govt-secured-over-rm200bil-in-investment-commitments-from-official-overseas-trips> (검색일: 2024.02.15.)

Yeoh, Tricia. 2023. “Will Anwar’s Political Dilemma in Malaysia stall reforms?.” *EASTASIAFORUM*. September 20. <https://eastasiaforum.org/2023/09/20/will-anwars-political-dilemma-in-malaysia-stall-reforms/>. (검색일: 2023.12.23.)

Yingzhu Li, Xunpeng Shi, and Bin Su. 2017.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fuel subsidies: A revisit of Malaysia.” *Energy Policy* 110: 51 - 61.

(2024.1.24. 투고, 2024.1.30. 심사, 2024.2.6. 게재확정)

<Abstract>

Malaysia 2023: Challenges and Crises For One Year of Unity Government

Young Kyung KO
(Korea University)

Kiryong CHOI
(Gyeongsangnam-do Council)

The biggest concern among Malaysian politicians in 2023 was whether the Unity Government would be able to stably carry out the reforms desired by the Malaysian people despite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Anwar Ibrahim, a symbol of reformasi, has pledged to eradicate corruption, strengthen democracy, and solve the economic recovery hampered by the pandemic with the MADANI economic framework and NIMP 2030. However, the withdrawal of charges against Ismail Sabri, president and deputy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UMNO) and the request for former Prime Minister Najib's pardon caused microcracks within the party and put the Anwar government on edge. Due to the good performance of Barisna Nasional, which caused a green wave in the state elections, it has become urgent to prepare measures to gain support from the Malay-Muslim community in the future.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Merdeka Center released in October, warnings are

being heard everywhere for the first time in a year under Anwar as the approval rating of the unified government has fallen due to economic problems. In line with the time of the Sultan's change in 2024,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are required for the security of the Anwar government's regime.

Key Words: Unity Government, State poll, Green Wave, MADANI economy, NIMP 2030

